

관계문화공간에서 여성의 자리

- 다문화관점에서 기혼여성(아줌마)을 위한 목회상담 -

김 미 경 교수
(Ph.D., 한영신학대학교)

국문초록

사회가 세분화되면서 문화도 분열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농촌이라는 생활공간에서 비롯된 공동체적 성격이 강했다면 지금은 통합된 문화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기존의 문화가 기성세대, 기득권, 중심지역에 의해 주도되던 것에 비해 각 세대와 계층, 지역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반응도 많다. 하지만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문화의 차이가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의 부재와 문화 간 소통의 단절로 나타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주로 미국에서 개발되어 활성화된 다양한 상담접근은 백인 중산층의 문화 특성이 강하여 상담에서도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독자적인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을 강조하며 자율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가치들이 포함된다. 이처럼 백인 중심의 상담접근이 타민족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비판하게 되면서 비교 문화 상담이 발전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올바른 상담을 위해서는 타문화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다문화 상담이 대두되었다. 미국처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비해 지역성이 두드러지며, 출신지역에 따라 차별성을 나타내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다. 지역마다 사고방식과 성격에 차이가 있으며 서울만 해도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을 따로 구분 짓는다.

이처럼 뭔가 구분 짓기를 좋아하는 우리문화의 특성으로 문화간의 단절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아 온 집단이 제 3의 성(性)인 '아줌마들'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은 결혼과 동시에 집단주의 문화권에 더 깊이 함몰되어 왔으며, 사회에서는 희생과 봉사하는 덕을 앞세워 기혼여성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에 더 혼신을 가져다주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문화성향은 그 구성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속한 문화권은 사고와 행동의 차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자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자각하고 아울러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가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탐색해야 한다. 다문화를 고려하여 치유와 상담을 하신 예수님은 지역간, 계층간의 벽을 넘어서 사역을 감당하셨기에 목회 상담자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데 손색이 없다.

중심단어 : 목회상담자, 집단주의 문화, 기혼여성, 아줌마, 비교문화상담

I. 여는 글

지금까지 상담이라는 학문과 실체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공헌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담자가 되려는’ 사람들과 ‘상담을 받고 있는,’ 그리고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 중에 여성들이 남성 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실 때문이다.¹⁾ 단적인 예로 매년 대학원의 상담학과는 다른 어느 학과보다도 많은 예비 상담자들이 응시하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하여 ‘상담의 여성성’ 과 ‘여성상담’에 대한 연구가 기존의 연구 방향과는 다르게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상담이라는 이론과 실체가 내포하고 있는 특성들은 남성성의 원형보다는 여성성의 원형에 가깝다. 그 이유는 상담의 정의, 목표, 과정, 그리고 상담자의 인성적 특징이 여성성의 원형에 부합되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내담자들과 잠재적인 내담자들을 추정해 볼 때 여성들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은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심리적인 불편감과 사회적인 구조상에서 열등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을 구타하는 아내도 더러 있지만 가정폭력의 행사자는 대개 남성이기 때문이다. 외도와 폭력, 다양한 중독이 가져다 주는 가정의 제반적인 역기능 때문에 여성들은 상담자에게 심리적인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나라 상담을 주도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추되, 기혼여성들 일명, 아줌마²⁾들에게 연구중심을 맞추고자 한다. 대개 아줌마라는 단어는 '잘나지 못하고 귀하지 못하며 존재 없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이들이 담당해 온 무거운 역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되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아줌마라는 존재의 집단적, 심리적 특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일반의 부정적 인식—아줌마는 여자도 아니다—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아 왔기 때문이다.

사회를 밑에서 떠받치는 세력으로서, 또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온 신앙생활의 선배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기혼여성들, 바로 아줌마에 대해 변화된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구조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제약을 가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한국 여성들의 현재 위치를 고려한 효과적인 목회상담의 접근을 시도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펴는 글

1. 문화유형과 기혼여성들

1)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

한 나라의 문화성향은 그 구성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속한 문화권은 사고와 행동의 차이를 수반한다. 여러 문화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핵심 차원중의 하나가 Hofstede가 제시한 집단주의—개인주의의 분류체계이다.³⁾ 한 사회를 이렇게 집단주의 또는 개인주의로 규정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에 대한 견해의 차이이다.⁴⁾ 동아시아와 남미권은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강하여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를 개인 사이의 관계 또는 집단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개인 사이의 상호의존성 및 내집단(in-group)에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하고 추구한다. 이에 반하여 북미와 북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타인이나 집단과의 분리와 독특성 및 개인적 이익과 개성을 강조하고 추구한다. 다시 말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상황 의존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을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호의존적 자기의 개념이 우세하게 됨으로써 강한 사회적 정체감을 갖게 되지만, 개인적 원망과 선호를 추구하는 자기본위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 사회의 근본적인 구성요소라고 보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상황윤리적이고 개체중심적인 인간관을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독립적 자기의 개념이 우세하게 됨으로써 강한 개인적 정체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⁵⁾ 즉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목표를 축으로 하는 개인지향을 중시하게 된다. 이러한 범주에는 자율, 극복, 지배, 자기과시, 거부, 자기주장 및 독립의 차원들이 포괄되는데, 이는 개인을 직접적인 공동체로부터 분리하고, 사회 환경 내의 타인과는 독립적으로 또는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개인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행동과 관련된 것들이다.⁶⁾

한편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에의 관심과 배려를 축으로 하는 타인 및 집단지향을 중시한다. 이러한 범주에는 소속, 존경, 모방, 친밀, 양육, 보호, 수혜, 의존, 비난회피, 굴종, 애착, 사회적 용인, 공감 및 이타성 등이 포괄되는데, Geen은 이를 “개인을 타인과 밀접하게 이끌고, 개인과 사회 환경 사이의 공동체감을 촉진시키는 행동을 산출한다고 보고 있다.”⁷⁾ 집단주의의 특징은 자아를 집단의 일부로서 파악하고, 집단의 결속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집단에 강한 정서적 애착을 갖는 것이다. 반면에 개인주의의 특징은 자아를 집단과는 별개의 독특한 단위로 인식하고, 개인의 목표가 집단의 목표에 위배될 때라도 개인의 목표를 강조하며, 집단결속에 관심이 적고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집단주의 문화란 한 개인이 그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나 조직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인간관계의 유지가 우선시 되며, 집단의 가치기준을 개인의 가치기준보다 소중히 하는 것을 말한다.⁸⁾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이나 조직에서 정서적으로 얼마나 독립되어 있는가에 역점을 두는 만큼, 구성원 각자가 지닌 개성을 존중하고 권리를 귀중하게 여기는 정의를 우선시 한다.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집단, 조직, 또는 다른 집합체(collectivities)들로부터의 정서적인 독립을 의미하기에 개인주의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직계 가족만을 돌보는 것이 격려되며, 그 사회에서는 자기지향성(self-orientation)과 자기정체감이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대인관계보다는 개인적인 성취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사람들은 가치기준을 자기가 밀접하게 소속되어 있는 내집단(in-groups)이나 밀접하게 소속되어 있지 않은 외집단(out-groups)에 동등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we)' 보다는 '나 (I)' 라는 단어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사는 개인은 확대가족 또는 개인이 소속하고 있는 집단의 한 부분(an aspect of an extended family or clan)으로 취급되어지며, 개인은 그 집단에 대한 몰입과 충성의 대가로서 그 집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그와 같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지향성(collectivity-orientation)이 기대되어지며,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대인관계가 더 강조되어진다.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기준을 자기가 밀접하게 소속되어 있는 내집단과 밀접하게 소속되어 있지 않은 외집단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나' 보다는 '우리' 를 더 많이 사용한다.⁹⁾ 그러므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상황과 관계에 맞추어 적합하게 조정해야 한다. 즉 관계의 조화에 가치를 중시해야 하므로, 개인의 내적 속성이 원만한 사회적 평형의 유지와 갈등할 때 이를 따르는 것은 이기적이고, 미성숙하며, 불성실한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동기면에서도 사회지향 성취동기의 형태를 띠며, 가족과 같은 중요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배경이 되지만,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지향 성취동기의 형태를 띠어, 성취 그 자체를 위한 노력의 배경이 된다. 말하자면,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성취의 목적은 '집단' 에 집중되지만, 개

인주의 사회에서의 성취의 목적은 '나'에 집중되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자기를 평가하는 사회비교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¹⁰⁾의 추구에서 핵심적인 과정으로, 이러한 사회비교의 동기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다. 그러나 그 참조기준이나 비교대상은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외집단과의 경쟁이 기본적인 경쟁의 양상이므로, 비교대상은 주로 외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 되며, 비교의 기준은 중요한 타인 또는 내집단이 설정하는 규범이 된다.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단점 보완을 통한 자기개선이 긍정적 자기인식의 통로가 되므로, 자기의 단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상향적 사회비교가 비교의 주양식이 된다.¹¹⁾ 이에 비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 간 경쟁이 기본적인 경쟁의 양상이므로, 비교대상은 주로 자기와 유사한 타인이 되며, 비교의 기준은 스스로의 내면화된 가치체계가 된다.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의 독특성 인식을 통한 긍정적 자기상의 추구가 문화적 명제이므로, 긍정적 자기평가를 통해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사회비교를 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하향적 사회비교가 비교의 주양식이 된다.¹²⁾ 인간은 타인이나 집단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행위와 동기의 맥락이 사회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여성들을 교육을 담당해 온 제반 시스템은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 Hess¹³⁾와 같은 여성주의 신학자들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¹⁴⁾ 공교육 못지않게 기독교교육에서도 신앙적 대화에서 전적인 파트너로서의 여성을 배제해왔고 무시해 왔다. 단적인 예로 기독교 공동체가 행해 온 커리큘럼이 삶의 공동체 대화를 감소시켰음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을 내어주는 여성의 성향을 부추김으로써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했다.

필자는 이러한 기독교교육의 패턴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용됨으로써 집단주의 성향이 더 지배적인 한국문화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잠식시켰다

고 본다. 그나마 미혼시절에 지니고 있던 목소리마저 시택식구와의 역동적인 관계속에서 체면과 눈치를 키워 내적으로 접어두고 삭히는 패턴이 누적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발화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문화양식과 기혼여성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배려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친밀, 양육, 애착 등과 관련된 행위를 산출해 줄 것을 사회구조는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는 다원주의 사회로 포스트모던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과거 전통과 실제 우리나라 문화성향을 가늠해 볼 때 다분히 집단주의 사회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나라 여성들, 특히 아줌마들은 집단주의, 관계문화에 길들여져 왔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이미지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한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은 결혼과 더불어 빼앗겨졌으며, 누구의 아내와 며느리,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미(美)¹⁵⁾였고, 그것이 곧 편안과 안락을 제공받는 장치였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역할관계에서 남녀의 특성을 성 고정관념으로 지각하는 것은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즉 남편은 주도적(agentic) 특성¹⁶⁾이며, 아내는 친화적(communal) 특성¹⁷⁾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년기부부 관계를 살펴보면 이처럼 확연한 양분화는 타당하지 않다. 사회생활에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정사에서 모든 대소사의 권한은 여성, 즉 아줌마들이 보유하고 있다. 중년기로 갈수록 부부의 무게중심은 남편보다는 아내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왜 남녀가 가진 많은 역할특성 중 남성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특성만이 선택적으로 관찰되고, 여성에 대해서는 친화적인 특성만이 선택적으로 관찰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왜 남녀의 역할행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특성만이 선택적으로 관찰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내, 고용주와 피고용주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이 존재한다. 이들 역할에는 역할관계에서 추구되어야 할 상호작용목표나 역할기대가 내재되어 있다. 여기서 역할기대(role

expectation)란, 주어진 역할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는 일종의 규범적 기대를 말한다. 이런 역할기대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합의의 산물로서 이를 어길 때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 필자가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다분히 집단주의 문화권, 즉 관계성을 중시하는 문화권에서 여성의 많은 잠재적인 특성 가운데 친화적인 특성만을 강조하고 선택적으로 강화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에게 관계성을 강조하는 문화는 포스트모던으로 가는 사회에서 가치갈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단적인 예가 가족 내에서는 고부갈등으로 표면화된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머리에 아로새기며 사회구조에 순응해 온 시어머니와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서구의 개인주의 사조에 영향을 받은 며느리와의 가치체계의 갈등이 고부갈등으로 빚어지기 때문이다.¹⁸⁾ 비단 가정에서만 가치관의 충돌로 갈등을 갖는 것이 아님을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경험할 수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는 가치관이 혼재해 있다. 세계화와 매스컴의 발달로 서구의 많은 문물과 그에 따른 가치와 사고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기성세대보다 신세대는 이러한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주로 미국 사회에서 개발되어 활성화된 다양한 문화는 그것이 아무래도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 라고 일컬어지는 백인 중산층의 문화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나 인종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때 백인 중산층의 문화라는 것은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독자적인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을 강조하며 자율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가치들을 포함한다. 이처럼 백인중심의 상담접근이 타민족에게 적용되는 것을 비판하게 되면서 비교 문화적 상담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올바른 상담을 위해서는 타문화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다문화적 상담론이 대두되었다. 미국처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비해 지역성이 두드러지며, 출신지역에 따라 차별성을 나타내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다. 지역마다 사고방식과 성격에 차이가 있으며 서울만 해도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을 따로 구분 짓는다.¹⁹⁾

이처럼 뭔가 구분 짓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도 성비로 볼 때 여성들이 상당수이다. 여성들 중에서도 제3의 성으로 불리우는 아줌마²⁰⁾들이 내담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무엇보다도 상담실을 방문하는 중년의 아줌마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²¹⁾ 상담을 공부하고자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도 여성이 단연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쉽게 목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기혼여성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어떤 사회적 변인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열등한 위치를 갖게 했는가? 사회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양상을 띠고 있을지라도 아줌마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신세대는 급속하게 포스트모더니즘에 발을 담그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여성들 특히 아줌마들은 과거의 그 자리에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 또 그래야만 되는 것으로 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사회의 현주소인 것이다. 남녀평등 지향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모성적인 몰두'를 내세우면서 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혼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일지라도 공동분담이 아니라 전적으로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무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가족관계가 빚어낸 모습으로 등장한 것 중의 하나가 사이버 패밀리(cyber fam)가 아닐까 싶다. 이는 인터넷상의 가족으로 가상의 가족동호회를 일컫는 말이다. 불만족스러운 남편에 대해 다른 뜻이 맞는 대상을 인터넷상에서 만나고 구축하여 사이버 가족관계를 형성한다.²²⁾

남성들에게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場)들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지만, 여성들에게는 되도록이면 재갈을 물리게 하려는 것이 우리네의 심성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과 지적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데, 여성의 권한척도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²³⁾ 이 또한 우리나라 여성이 우수한 능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가 남성중심

적인 문화와 개인보다는 제도, 관습, 관계성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다채로운 사회에서 기혼여성을 위한 다문화상담적인 시각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2. 다문화상담

다문화주의적 상담은 오늘날 상담의 제4세력이라고도 불리워질만큼 그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것은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본주의의 뒤를 이어 상담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다.²⁴⁾ 이렇게 문화에 대한 배려가 상담에서 강조되는 바는 서구에서의 문화지향적 접근이 타민족이나 소수인종에 대한 이해가 촉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인식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동일문화권의 동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하위문화권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으로 문화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에서의 비교문화상담(cross-cultural counseling)은 주로 백인상담자가 소수민족 내담자와 상담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비교문화상담은 점차 민족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동일민족 내에서도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나타나는 성별, 나이, 사회경제적 수준, 가치관 등 모든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를 포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의미를 모두 포함할만한 보다 더 적절한 용어로서 다문화적 상담(multi-cultural counseling)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²⁵⁾

비교문화적, 다문화적 상담의 주요 관심은 서구에서 개발된 전통적인 상담이론과 기법들을 동양적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우리나라 내담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상담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동안의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현재동양과 서양의 문화비교의 틀로서 가장 확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이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이라는 연구 결과들²⁶⁾이 많다.

가족구조를 중심으로 본 우리나라문화는 개인주의만도 집단주의만도 아니라고 지적할 수 있다. 외관상으로는 부부중심의 개인주의이지만 여전히

내집단 중심의 관계적 성향이 강한 집단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문화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사회는 정신없이 빨리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가족체계는 과도기적 상황으로서 실제구조는 핵가족의 형태이지만 관계상으로는 대가족 구조로 보여진다.²⁷⁾ 이렇게 지속되어 온 대가족 구조는 개인의 분화에 대한 욕구는 억제되거나 금기시되고 기존의 질서속에서 안주하고 화목하며 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가족구조는 연령별, 세대 간, 성별로 상하관계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계질서가 현재 핵가족에게 그대로 적용될 때 과연 효과적인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간의 갈등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집단주의 문화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지배적 가치였던 유교는 우리나라 사회에 집단주의 문화를 뿌리내리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유교적 인간관계의 특징은 개인보다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이를 가치있게 여긴다. 유교의 효 사상, 조상숭배, 친족관계 등은 개인으로서보다는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요구를 우선하는 풍토를 낳았다.²⁸⁾ 이 상태에서 개인과 가족이라는 경계는 사라지고 가족이 곧 나를 주관하며 중심을 차지한다. '나' 라는 말보다 '우리' 라는 말을 즐겨 쓰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반영한다.

이처럼 관계중심의 성향이 강한 한국가족문화의 특성으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관심이 큰데,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치감을 느끼게 된다. 수치심(shame)은 대개 자아(ego)와 이상(ideal) 간의 긴장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한다. 특히 집단성향이 강한(high-context) 문화에서의 개인은 내집단의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자아와 이상 간의 괴리로 죄책감(guilt)보다는 수치심이 더 많이 유발된다. 수치심은 어떤 일의 실패에 앞서 미리 느끼는 불안이라 볼 수 있다.²⁹⁾ 그러므로 이런 불안을 해소하려고 개인은 자기가 속한 내집단(예를 들면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고 자신이 그 집단 전체와 잘 조화를 이루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손해가 따르더라도 내집단에 따르고 순응하면서 인간관계 유지에 힘쓴

다.

전통적인 한국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주체성이나 창조성, 그리고 독립성 보다는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망속에서 상호의존적이고 협동적인 조화를 강조하며,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므로 개인행동의 결과면에서, 집단주의자들은 인간은 상호의존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타인의 행동 역시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는다. 따라서 집단주의자들의 가족문화권에서 한 개인의 잘못이나 실패가 가족에게 불명예를 끼친다고 생각하기에 눈치를 보게 되고 체면을 중시하게 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주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체면문화(face culture)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의 체면은 친지와 가족, 친구와 같은 내집단의 구성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개인주의 문화권보다 자유롭지 못하고 어느 정도 압박과 강요를 받는 개념이다. 또한 명예나 수치심과 같은 개념들과 밀접하게 묶여 있기에 심리적이고도 정서적인 구조물로도 볼 수 있다.³⁰⁾ 눈치와 체면³¹⁾을 중시하는 관계로, 한국의 내담자는 상담실을 찾는 비율이 서구보다 낮은데다, 대부분의 상담접근들은 서구의 개인주의 풍토에서 조성된 이론들이므로 우리나라 내담자가 지닌 문화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Sigmund Freud의 정신역동 접근에 의하면, 내담자가 상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경우를 '저항'으로 해석하지만, 이러한 해석을 우리나라 내담자에게 적용함은 다소 무리가 있다. 문화적 성향이 집단주의인지라 상담실을 찾고 자기의 문제를 공개하면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게다가 상담실을 방문해도 서구의 전통적인 상담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Freud의 정신분석은 문제의 원인을 통찰하고 해석에 치우쳐 장기간의 치료회기를 요하므로 서두르고 조급함이 있는 우리나라 민족성향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인본주의 방법 역시 가족위계 구조속에서 성장하여 온 내담자를 스스로 치료의 책임자로 키(key)를 준들 내담자는 이를 부담스러워 하고 상담자가 권위 있는 태도로 문제해결을 지

시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경우는 지성과 학식을 고루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에 대한 잘못 이해로 족집게와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단1회 상담으로 문제해결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담자도 많다. 결단과 판단의 책임자로 자리지워지는 것을 내담자는 부담스러워 할 때도 있고 상담을 서둘러 끝마치려는 내담자도 많다. 이런 사례에서 바로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여 진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결정해주고 관여해 주기를 기대하는 집단지향성이 강한 우리나라 민족에게 더 효율적이면서도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는 상담접근이 충분히 모색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우리나라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서구문화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한국도양에 맞는 상담이론과 기법들을 고안해야 한다.

3. 우리문화적인 상담의 모색

심리적 어려움이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인간관계 등을 안고 있는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개인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내담자가 속해 있는 그 사회의 독특한 문화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상담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 문화에 오랫동안 지대하게 영향을 끼친 정신사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유교라고 볼 수 있다. 인(仁)과 예(禮)를 중시하는 유교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며³²⁾ 이런 집단주의의 영향으로 한국인은 '나' 라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 라는 복잡한 구조안에서 다양한 부분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 라는 관계를 엮어가며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조화가 개인에게 상당히 요구된다. 실제적으로 내담자의 문제가 현대생활의 복잡 다양한 실제생활에서 겪는 갈등이나 현실적 문제는 결국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실제적인 것들이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에 사회적인 존재며 관계안에서 불편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간은 상실(loss)을 두려워한다. 그동안의 유대관계가 이런저런 이유로 파괴되고 단절되는 상실의 경험은 개인을 위축시키고 어려움을 맞보게 한다.³³⁾ 대개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은 내담자에게서 그대로 드러난다. ‘빨리빨리’의 문화적 특성을 지닌 내담자는 상담을 단기간의 속성 과정으로 여기고 직접적인 문제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문제를 위기로 인지하고 어려움을 통해 성장의 경험으로 삼으려는 도전정신보다는 재빨리 문제에서 벗어나 시급한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경우를 상담 장면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상담자가 직접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요구하기에 상담에서 이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상담자는 서구의 상담이론과 훈련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인본주의 상담접근은 지시적이기 보다는 수용과 정확한 공감으로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의 세계를 이해해 줌으로서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모색하도록 치료적인 분위기만 제공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상담자 훈련과정에서 익혔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배웠다. 왜냐하면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를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개인의 목표추구를 존중해 주고 그것이 구현되는 것을 궁극적 가치로 여긴다. 그러므로 이 접근 역시 각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인간관을 전제로 하기에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하게 배어 있다.³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상담자가 조언이나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상담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한 전문가이니만큼 내담자 본인보다는 상담자의 조언이나 방향제시가 더 신뢰롭고 가치 있다는 의식이 배어 있다.

내담자는 자기의 심경과 문제를 토로한 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판단과 선택의 주도권을 상담자에게 내어주는 것이 우리내의 보통 태도이다. 심지어 어떤 내담자는 상담자가 빨리 판단해 줄 것을 재촉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과 흔적이 배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기복적이고 샤머니즘 성향이 강한 한국문화는 자신의 운명과 문제를 타자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하다.³⁵⁾ 한국적 정서에 걸맞는 상담의 토

착화를 위한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내담자의 인종과 문화적 배경, 민족적 배경을 연구변인에 포함시켜, 단순히 “Rogers의 감정 반영 기술이 효과가 있는가?”라는 단일 명제보다는 여러 변인들을 고려한 상담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국적 상담의 골격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국가나 문화에 따라 상담과정, 상담방법, 상담에 대한 기대, 내담자와 상담자가 관계 맺는 방식 등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국가인 미국의 경우 이런 접근은 필수적인데, 단일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관점은 필요하다. 단일문화권 아래 다양한 하위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에는 상담에 대한 기대나 인식 상에 차이가 있고, 서구화된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 간에도 상담에 임하는 태도와 행동은 매우 다를 것이므로 이를 고려한 다양한 상담접근이 적용되어야 한다.³⁶⁾

4. 다문화적, 여성주의를 고려한 목회상담자의 자세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단독으로 써나가는데 있어 사회문화적인 맥락의 많은 제약을 받는다. 사회는 공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성들은 사적으로 스스로 선택하는데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느낀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자율적인 선택이 여성다움에 대한 기존 관념, 특히 여성은 착해야 하고, 착한 여성은 자기희생적인 여성이라는 도덕적 등식에 대립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갈등을 느끼기 때문이다. 즉,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이 도덕적 성숙의 일반적인 징표로 상징되어 왔지만, 여성의 도덕성은 그들이 얼마나 남들을 잘 보살피고 관심을 쏟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졌고, 이러한 기준을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자신도 오랫동안 받아들여왔다.

이처럼 여성들 스스로가 혹은 사회의 인습에 의해서 형성된 도식은 여성들 내부에 깊이 잠재하여 이혼이라는 사건은 아직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불리한 생의 사건으로 지각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그동안의 사회가 남성들 목소리가 중심이었으며 남성들이 형성해 온 사회의 지배적인 이야기에 의해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는 주변으로 밀려나 있었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대체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여성들은 개인화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는 다시 말해 남성적 정체감은 친밀성에서 위협을 느끼는 반면, 여성적 정체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황에서 위협을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rik H. Erikson에 따르면 남성들이 보여주는 삶의 이야기에서는 친밀하고 생산적(성숙성)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확고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훨씬 늦게 성인 중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친밀성, 인간관계 및 보살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다. 이처럼 삶의 이야기에서 남성과 여성이 중요시 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데 있어 부부는 갈등을 빚는다고 볼 수 있다.

부부의 이야기는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독립적인 동시에 함께 써나가는 영역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경계선이 명확한 부부관계일지라도 그들은 인생의 가치나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이에 맞는 인생사(life history)를 써나가는 작업을 하게 된다. 여기서, 특히 힘의 욕구보다는 관계적 차원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여성의 입장에서는 가정에 대한 애착이 많게 되는데 이러한 욕구에 남성들은 함께 동역하는데 있어서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더욱이 핵가족화 되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여성에게 이중의 짐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³⁷⁾ 남성의 삶의 이야기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역할은 양육자, 보호자, 보조자 등이었는데 여기에 더 부가하여 가정경제의 일임을 담당하는 역할까지도 부가하고 있다.

그동안 같은 이야기라도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이야기가 훨씬 우위에 있었고 가치롭게 여겨져 왔다. 즉 남성의 삶의 이야기에 토대를 둬으로써 여성의 역할과 중요한 이야기들은 배제되어 왔다. 삶의 이야기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하기에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개인의 삶의 순환과 가족의 삶의 순환을 위해서 남성 편향적인 이야기는 이제 양성을 중시하여

시야를 확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생애의 이야기에는 자신에 대한 보존의 의미가 담겨 있다. 여성의 경우 자기의 보존에 내용을 이루는 것은 관계와 보살핌의 언어가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자신만의 내적 목소리에 더욱더 확신을 가짐으로써 새로 찾은 목소리가 다른 곳에서 나온 목소리가 아닌 내 판단에 의한 나만의 고유한 목소리임을 자각할 때, 중년기의 대본을 성숙하게 써 내려 갈 수 있다고 본다. 과거이야기(old story)의 일반적 주제는 때로는 상담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주의 상담자는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에서 배제되어 온 보다 중요한 다른 인생주제를 찾고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중심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 이야기가 연속성과 통합성을 지녀 응집력이 있는 건강한 이야기를 구축하도록 목회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써나가기(co-authoring)한다. 목회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 뒤에 숨겨져 있다고 추정되는 삶의 이야기를 함께 찾아내고 알아가야 한다. 즉 내담자의 경험의 세계를 함께 알아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인생의 사건으로 삶이 봉쇄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고백적 이야기나 그 밖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낼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더욱이 기혼 여성들은 늘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초점(figure)이 되어오고 자기의 목소리는 약한 배경(ground)이 되어 자신의 욕구를 타인의 목소리와 구분시키지 못하게 된다. 보통 기혼 여성의 내담자는 일관되는 인생주제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의미있는 전체로 엮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목회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만의 경험의 세계를 구축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목회상담자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보고할 때 그 회상의 생생함이나 중요도에 관심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생 가운데 어느 시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가장 많은 사건들을 회상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개인마다 가장 많이 회상하는 인생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³⁸⁾ 목회상담자는 개인의 회상된 인생사속에서 사건들이 어떤식으로 조직화되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거꾸로 인생주제를 추론해 낼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한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주 등장하는 인물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 의미있는 인물의 목소리가 전경(figure)이 되지 않고 배경(ground)으로 물러나도록, 즉 다른 목소리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을 내담자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목회상담자는 어떠한 선입견이나 기대도 미리 형성하지 않고, 치료자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직 내담자가 이야기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매 회기마다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담자의 현재 병리적인 증상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정신분석은 과거의 경험을 추적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story)에 관심을 가지되, 현재의 증상을 보이지 않은 건강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현재 호소하는 문제가 지난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치료의 자원으로 활용한다.

한편, 여성주의적 상담을 옹호하는 Neuger는 여성주의적 목회상담가는 다음의 세 가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로 구조안에서 희생당한 여성으로 하여금 문제의 근원인 이야기를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로 문제들을 다양한 문화적 렌즈를 통하여 보게 하고 진짜 문제들을 더 잘 비추어주기 위한 적절한 해석적 틀을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명료화하는 과정을 도와주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로 여성 내담자의 삶과 세상속에서 억압하는 세력들에 항거하고 그것들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내담자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³⁹⁾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개념에 대한 준거를 토대로, 다문화적 상담과정에서 기혼여성인 아줌마를 위한 바람직한 목회상담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결론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목회상담자는 자신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개인주의 가치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관해 분명

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은 목회상담자가 내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상담기법을 주로 채택하는지는 관계없이 상담자가 자신의 가치를 내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목회상담자가 어떠한 가치를 더 중히 여기는가를 짚어보고 자각하고 있다면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가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탐색해 보아야 한다. 어떤 상담에서도 목회상담자는 가치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기는 실제로 어렵다. 동일한 내담자의 문제라 하더라도 목회상담자의 가치에 따라 상담의 방향과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지금까지의 제반 상담이론은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권의 산물이므로 목회상담자가 받은 훈련이나 이론적인 배경은 개인주의의 사고와 가치가 우세한 것을 우리가 수입하여 상담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⁴⁰⁾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과는 여러면에서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성격특성, 가치관, 행동양식, 및 대인관계 등을 염두에 둔다면, 무비판적으로 외국의 상담이론을 그대로 직수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더구나 정서를 다루는 상담에서 적절한 변형 없이 서구 상담이론을 그대로 접목하여 따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나아가 주체성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서양의 상담접근들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내담자의 심리적 갈등이나 문제해결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다양한 틀을 마련해 주고 상담의 골격을 이루는데 있어 적지 않은 이바지를 했지만, 이제는 상담관련 종사자들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맞게 다듬어 사용하는 주체적 태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아줌마를 형성하고 있는 문화를 다문화상담자가 올바르게 인지하여 이를 토대로 적절한 상담접근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 또한 다문화상담자가 취해야 할 태도인 것이다. 특히, 다문화목회상담자는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의 산물인 상담의 제반접근에 대해 명료한 사고와 책임성 있는 선택을 통해 다른 세계관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을 돕는 과정에서 각 문화를 넘나드는 공감대를 형성하여(interpathetically)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목회상담자의 과제는 그 문화의 가치 구조를 조사함으로써 실

제에서 나타나는 모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가치를 되찾는 것을 조력하는 일은 목회상담자의 지속적인 과제인 것이다.⁴¹⁾

모든 문화는 선택된 핵심적 가치의 형태를 띤다. 이는 문화들을 명확하게 구별 짓기에 목회상담자는 모든 인간의 가치가 중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다른 문화의 내담자를 대할 때 그들이 지닌 더 핵심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중심가치가 문화와 인간을 빚어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⁴²⁾

다문화를 일찍이 의식하고 이를 전제로 치료와 상담장면에서 활용한 원형을 우리는 성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백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헬라인 등의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치료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 예수님 당시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민족들이 많았기에, 지역간, 계층간,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지닌 자와 약자 등이 서로 갈등을 하며 공존하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감안하여 필요 적절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문제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신 것을 성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몸소 육신의 형상을 입고 오셨으며 스스로 소외된 계층의 위치를 택하여 계층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의 신분⁴³⁾으로 다가와 친히 자기를 낮추시고 소수인종(minority)을 배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need)를 해소하여 주셨다. 예수님은 하찮은 사람들(marginal person) 중에서도 가장 약자이신 모습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와 같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구절에서 집 없는 떠돌이(homeless man)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개 예수님의 삶에서 치유와 설교만 강조되면서 정작 집 없는 약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간과되어 온 것이다.⁴⁴⁾ 예수님의 사역에서 인종 간, 계층 간,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다문화를 인식하며 돌봄을 제공하신 다양한 사례를 성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마가복음 5장 21-43절의 말씀을 보면, 경이롭고도 복합적인 이야기 구조를 만나게 된다. 이 구절은 경건한 자인 아이로가 자기의 병든 딸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께 청하고 있다. 예수가 아이로의 간청을 마음에 두

고 길을 떠날 새, 혈루증을 앓는 의지할 곳 없는 여인이 예수가 지나갈 때 그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다. 예수는 분명히 자기의 목적지로 가던 길에서 이탈하여 '깨끗지 못한' 여인이 치료를 받도록 하여 그동안 아이로의 어린 딸은 죽게 된다. 이는 마가의 이야기 전개에 의하면, 처음에 제시된 아이로의 딸 이야기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끝부분, 즉 그 여인이 병에서 놓여 평안해진 다음이 되어서야 비로소 다시 아이로의 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혈루증 여인이 치료를 받은 후에야, 예수는 중요인물의 딸을 되살린다.

이러한 논리를 전개시킨 Wilson에 의하면, 마가는 결국 중심(center)에 위치한 인물치유는 소외(margin)된 위치의 사람이 치유된 다음에야 가능함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본다. 우리가 알다시피 회당장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다. 주요한 지도자가 치료 때문에 하나님께 청하였는데, 무시되고 약자로 밀려 나 있던 여인은 오히려 아이로의 어린 딸을 하찮은 계층으로 밀어냄으로써 고쳐주는 사람에게서 치료를 먼저 받게 되는 우선권을 갖게 된다. 예수님의 돌봄 사역에서 소외된(margin) 계층과 지배적(center) 계층의 위치가 전복되는 극명한 사례를 접하게 된다.⁴⁵⁾ 그러므로 다문화화를 고려하여 치유와 상담을 하신 예수님은 지역간, 계층간의 벽을 넘어서 사역을 감당하셨기에 목회상담자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데 손색이 없다.

III. 닫는 글

사회가 세분화되면서 문화도 분열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가 농촌이라는 생활공간에서 비롯된 공동체적 성격이 강했다면 지금은 통합된 문화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기존의 문화가 기성세대, 기독교, 중심지역에 의해 주도되던 것에 비해 각 세대와 계층, 지역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반응도 많다. 하지만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문화의 차이가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의 부재와 문화 간 소통의 단절로 나타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간의 단절로 가장 피해를 받아 온

집단주의 하나가 제3의 성(性)인 '아줌마들' 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은 결혼과 동시에 집단주의 문화권에 더 깊이 함몰되어 자신의 몸짓을 펼 수가 없었기에 주부우울증과 각종 신체화 증상들을 호소하였으며, 사회에서는 희생과 봉사하는 덕을 앞세워 기혼여성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에 더 혼선을 가져다주었다. 물론 가정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송두리째 잃으면서 일방적으로 내어준다는 것은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많은 문제를 양산한다는 것을 사회에서는 외면해왔다.

사회적 역할의 담당은 마치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어 일이란 남자로서 그들의 경험을 발전시키는 수단이고, 남자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지하는 남성들의 자존감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왔다. 반면에 많은 여성들은 일에 대한 자신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의 자신 사이에 상당한 갈등을 경험하도록 사회가 부추겨왔다. 그러므로 전형적으로 일은 기혼여성들에게는 자존감의 요소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⁴⁶⁾ 이런 상충되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기혼여성의 주축인 아줌마들은 사회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것이 다시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역부족임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John Patton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돕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돌봄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기억하는 것이며, 돌봄에 대한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기억함으로서의 돌봄이라고 제안한다.⁴⁷⁾ 여기서 우리 여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자신을 배제한 돌봄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속성처럼 나를 내어주기는 하되 나를 잃지 않고 정체성을 보유하면서 돌봄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문화가 지극히 성차별주의(sexism)와 계층주의(classism)라는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에 상담자, 특히 목회상담자는 여기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민감해야 하며 가부장제도(Patriarchy)로 압도된 현실을 인식하여, 목회상담자 자신이 먼저 삶의 여러 수준에서 여성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야 한다.⁴⁸⁾

특히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남녀칠세부동석'이라 하여 남자와 여자의 문

화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뛰어 넘어 제3의 성으로 등장한 '아줌마'들의 문화는 요즘 시대의 독특한 특징임과 동시에 아직도 많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문화가 뒤에 붙은 아줌마는 기존의 '주부'와는 분명 달라진 개념이라고 본다. 주부가 한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 아내,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개념이라면 아줌마는 가정 내 역할에 매몰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이름이다. 이들 아줌마들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솔직, 편안, 여유라고 생각된다. 3, 4년 전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아줌마 문화는 가부장적 가치관속에서 억눌렸던 여성들의 욕구를 분출시키면서, 비록 각자의 가정이라는 자리에서 고립된 듯 보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아줌마의 세력을 점차 늘려갈 수 있었다. 실제로 줌마넷, 아줌마닷컴 등 아줌마들의 세력을 규합한 인터넷 사이트가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아줌마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면 개인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고급 인력의 낭비라는 사회적 손실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의식을 염두에 두고 바야흐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문화상담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기에, 동양과 서양의 문화비교의 틀로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이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이라는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이를 근거로 삼아 과연 유교중심의 한국문화에 대해서 집단주의 문화 개념이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했으며, 특히 이러한 집단주의 문화권이 기혼여성들 즉 아줌마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다문화상담과 관련된 공통된 관심의 주제는 서양에서 개발된 상담이론이나 기법이 동양의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한국인 내담자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교문화적 또는 다문화적 상담관련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다문화를 고려하여 상담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특히 목회상담자들은 다문화상담의 원형을 예수님의 치유와 상담에서 좋은 모델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식의 상담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먼저 다양한 하위 계층 문화가 공존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족중심의 관계 집단문화에 길

들여 있는 한 개인인 아줌마들이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나'를 잃지 않으면서 집단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정서적으로 독립하며, 또한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거부당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회상담자가 먼저 내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내담자(아줌마)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인식한 비교문화(cross-culture) 상담을 진행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려는데 있다. 덧붙여 현재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세대간의 마찰과 계층간의 갈등을 다문화적 상담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서로 상이한 문화간의 갈등을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후속연구에서 계속 다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 참고문헌 】

- 김계현. "상담심리학의 최근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6권(1994. 1).
- 김광은. "여성주의 상담원들의 여성역의식: 여성의 전화 상담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5권(2000. 1).
- 김명소, 성은현, 김혜원(1999). 한국 기혼여성들의 성격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 김명자, 서소영. "며느리의 시부모부양에 따른 보상, 부양의식, 부양행동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3권(1998. 2).
- 김수연. "자전적 기억: 기억연구의 새로운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제12권(1993. 1).
- 김태준, 이수원. "사회적 역할이 사회적 사건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5권 (1990. 1).
- 나은영. "의식개혁에 장애가 되는 문화적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2권(1995. 1).
- 박외숙. 다문화적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에 대한 검토. 한국심리학회 동계연구세미나집. (1996).
- 설기문. "다문화주의 입장에서 본 상담의 토착화와 한국적 상담의 가능성."

- 동아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편. 「학생연구」. 제21권(1993).
- 성혜영, 조희선. “일상성에서 본 부부평등성 경험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6권(2001. 1).
- 이혜성. “상담의 여성성과 여성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권(1997. 1).
- 장성숙.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역동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11(1999. 2).
- 조궁호.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대인평가 이원모형의 확대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7권(1993. 1).
- 최상진, 김기범.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4권(2000. 1).
- 최상진, 유승엽.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6권(1992. 2).
- 한규석.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 동계 연구세미나집. (1996).
- 한성열. “한국가족의 형태와 발달의 과제.”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한국인의 특성」. (1993).
- Augsburger, D. A. *Pastoral Counseling Across Cultures*. The Westminster. 1986.
- . *Conflict Mediation across Cultures*. Westminster: John Knox. 1992.
- Diener, E., & Diener, M.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5.
- Geen, R. G. *Human motivation: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Pacific Grove. CA: Brooks/Cole. 1995.
- Hess, C. L. Education as an art of getting dirty with dignity," in *The Arts of Ministry: Feminist-Womanist Approaches*. 1996.
- Hofstede, G.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차재호, 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1995.
- Jordan, J. V. & Kaplan, A. G. *Women's growth in connection*. New York: Guilford. 1991.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of self-esteem management: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7.

- Lee, J. Y. *Marginality :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Fortress Press: Minneapolis. 1995.
- Lois M. Wilson. Re-Imagining Community. *Church & Society*. 1994.
- Mdgette, T. E. & Meggert, S. S. Multicultural counseling instruction: A challenge for faculties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 (Jan. 1991)
- Patton, J. *Pastoral care in context: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Westminster: John Knox. 1993.

[후주]

- 1) 김광은, “여성주의 상담원들의 여성역의식: 여성의 전화 상담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5권(2000, 1): 15-25.
- 2) 한국의 아줌마와 같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기혼자처럼 보이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장소, 상황을 불문하고 호칭할 수 있는 말과 결혼과 동시에 개인의 속성 자체가 집단의 속성으로 환치되는 특이한 아줌마 현상은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 3) 더 자세한 내용은 G. Hofstede,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차재호, 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서울: 학지사, 1995)를 참조하라.
- 4) 조공호.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대인평가 이원모형의 확대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7권(1993, 1): 124-49.
- 5)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of self-esteem management: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67.
- 6) R. G. Geen, *Human motivation: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Pacific Grove, CA: Brooks/Cole, 1995). 249.
- 7) Geen, 249
- 8) 한규석,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 동계 세미나: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연구, 한국심리학회, (1996):
- 9) Geen, 139.
- 10) Bandura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자기효능감 개념을 도출하였는데, 다양한 양태의 임상적 처치(treatment)로부터 야기된 행동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했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상황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이 갖는 인지적 자원이나 동기 혹은 다양한 행동과정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개인이 어떤 기술을 소유하고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

의 판단이다. 개인이 갖는 자기효능감은 새롭고 모호하고 예측불가능하며 긴장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발휘된다. 각 개인은 특정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요인과 상황요인들을 평가해야만 한다. 반듀라는 효능감 평가는 능력에 대한 자기지각, 과제어려움, 요구되는 노력, 외부적 도움의 양, 수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조건,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일시적 패턴과 같은 많은 요인들의 상대적 기여를 가능하는 것을 포함하는 추론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 11) E. Diener, & M. Diener.,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5): 68, 653-63.
- 12) S. Kitayama, H. R. Markus, H. Matsumoto, & V. Norasakkunkit,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of self-esteem management: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7): 72, 1245-67.
- 13)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기독교 교육학 조교수로 요즘 부상하고 있는 여성신학자다. 그녀는 기독교 교육의 대화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다.
- 14) C. L. Hess, "Education as an art of getting dirty with dignity," in *The Arts of Ministry: Feminist-Womanist Approaches*, (1996): 60-87.
- 15) 여성신학자 Hess는 여성의 삶을 미(美)로 표현한 George Eliot의 설명을 인용한다. '그러나 그 다른 미도 역시 사랑하자.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풍성한 보라색 겉옷을 걸치고 얼굴을 천국의 빛에 의해 창백하게 된 천사로서 우리들을 그리자; 온화한 얼굴을 위로 돌리고 양팔을 벌려 신의 영광을 환영하는 마돈나로서 더 자주 우리들을 그리자; 그러나 거친 손으로 당근을 가는 늙은 여성과 더러운 선술집에서 휴일을 보내는 뚱뚱한 시골뜨기, 그리고 삼 위에 허리를 구부려 세상의 거친 일을 하는 등이 굽고 세파에 찌든 어리석은 얼굴을—그들의 집에는 양철 팬, 갈색 주전자, 거친 개, 양파 꾸러미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이처럼, 여성이 공동체 내에서 관계 속에서 함께 하는 삶, 즉 이 세상과 결부되어 사는 삶은 지저분하고 갈등이 많으며 거칠고 역동적이고 세파에 찌들어 있다는 것이다.
Carol Lakey Hess, "Education as an Art of Getting Dirty with Dignity," in *The Arts of Ministry: Feminist-Womanist Approaches*, (1996): 75-6.
- 16) 주도적 특성 : 성취지향적인, 적극적인, 독립적인, 결단력있는, 공격적인, 도전적인 등과 같은 성격특성들을 말한다. 이들 특성들을 '남성적 특성'으로 명명하고 있다. 김태준, 이수원, "사회적 역할이 사회적 사건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5권(1990, 1): 10-23.
- 17) 친화적 특성 : 따뜻한, 부드러운, 이해심이 많은, 자상한, 섬세한, 다정다감한 등과 같은 성격특성들을 말한다. 이들 특성들은 친화적 특성으로 명명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해경, 이수원, "사회적 범주화, 가치 선호 및 내집단 편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8권(1994, 2): 108-23.를 참조하라.
- 18) 김명자, 서소영, "머느리의 시부모부양에 따른 보상, 부양의식, 부양행동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3권(1998, 2): 81-107.
- 19)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거칠개는 경제적인 이유에 따른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치관에 있어서도 강북 청소년들이 진로·취업 등을 고민하는 현실

추구형이라면 강남 청소년들은 미래 추구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강남 청소년들이 강북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20) 한국 아줌마들의 심리적 특성을 연령대로 묘사하고 있다. 먼저 20대의 한국여성의 대표적 심리적 특성으로는 적극적 특성, 충동적 특성, 감각적 특성, 이기적 특성, 희망적 특성이 5가지로 나타났다. 40대 한국 여성의 대표적 심리적 특성으로는 무기력한 특성, 자상한 특성, 가족중심적 특성, 뻔뻔한 특성, 과시적 특성의 다섯 가지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60대 한국 여성의 대표적 심리적 특성은 세 가지로 위축적 특성, 권위주의적 특성, 자애로운 특성이 포함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명소, 성은현, 김혜원, “한국 기혼여성들의 성격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4권(1999, 1): 41-55를 참조하라.
- 21) 이혜성, “상담의 여성성과 여성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권(1997, 1): 1-13.
- 22) 사이버 상에서 가족관계를 이루는 ‘사이버팸(Cyber Family)’이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팸은 인터넷을 뜻하는 ‘사이버’와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의 합성어. 인터넷에서 부모, 형제, 부부 관계를 형성, 서로간의 고민을 공유하면서 함께 헤쳐 나가려는 모임으로, 커뮤니티 회원들이 정팅(정기 미팅)을 통해 오프라인상에서도 만나 ‘가상의 가족’ 관계를 지속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이버팸이 청소년들의 집단가출이나 원조교제 등 각종 일탈의 온상이 되면서 탈선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2002-05-08 >
- 23) 우리는 해마다 유엔개발계획에서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남녀권한척도에서 거의 꼴찌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도 64개국 중 6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국민일보 2002년 6월 3일 개재.
- 24) T. E. Mdgette & S. S. Meggert, Multicultural counseling instruction: A challenge for faculties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Jan, 1991): 136-41.
- 25) 설기문. “다문화주의 입장에서 본 상담의 토착화와 한국적 상담의 가능성.” 동아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편, 학생연구, 21권, (1993): 43-50.
- 26) 박외숙. “다문화적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에 대한 검토.” 한국심리학회 동계연구세미나집, (1996): 135-8.
- 27) 한성열. “한국가족의 형태와 발달의 과제.”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한국인의 특성」(1993): 48-51.
- 28) 장성숙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역동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11권(1999, 2): 21-3.
- 29) D. A. Augsburg, *Conflict Mediation across Cultures* (Westminster: John Knox, 1992) 82-4.
- 30) Augsburg, 86.
- 31) 체면은 ‘남을 대하기에 몇몇한 도리나 얼굴’로 정의된다. 체면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부끄러움에는 자신이 자신을 보고 느끼는 자괴성 부끄러움과 남에게 비취진 자신을 보고 느끼는 창피성 부끄러움이 있다. 인

- 간으로서의 도리는 사람 됨됨이라는 도덕적 인격과 연계된 도덕성, 인격 체면으로 귀결되고, 능력에 관계되는 부끄러움은 능력 체면으로 귀결된다. 한국문화에서 체면 행위 표출과 상징 표현의 방식은 규범적 형식성을 갖고 체면 행위 형식은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최상진, 김기범.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 성격」 제14권(2000, 1): 185-202와 최상진, 유승엽.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6권(1992, 2): 137-57.
- 32) 장성숙.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역동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11권(1999, 2): 22.
 - 33) John Patton. *Pastoral Care in Context: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Westminster: John Knox, 1993), 114-5.
 - 34) 설기문, 다문화주의 입장에서 본 상담의 토착화와 한국적 상담의 가능성, 동아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편, 학생연구, 21권(1993):
 - 35) 자세한 내용은 나은영. “의식개혁에 장애가 되는 문화적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2권(1995, 1): 33-51를 참조하라.
 - 36) 김계현, “상담심리학의 최근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6권(1994, 1): 156-7.
 - 37) 성혜영, 조희선. “일상성에서 본 부부평등성 경험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6권(2001, 1): 65-83.
 - 38) 김수연. “자전적 기억: 기억연구의 새로운 과제,”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2권(1993, 1): 3-9.
 - 39) C. C. Neuger,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Minneapolis: Forterss, 2001), 179-81.
 - 40) 장성숙.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역동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11권(1999, 2): 19-33.
 - 41) D. W. Augsburger, *Pastoral counseling across cultures* (The Westminster, 1986), 169-70.
 - 42) Augsburger, 174.
 - 43) J. Y. Lee,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Fortress Press: Minneapolis, 1995), 78-9.
 - 44) Lee, 86-7.
 - 45) L. M. Wilson. “Re-imagining community,” *Church & Society*, 84(5, 1994): 64.
 - 46) J. V. Jordan, & A. G. Kaplan, *Women's growth in connection* (New York: Guilford, 1991), 223-4.
 - 47) J. Patton, *Pastoral care in context: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Westminster: John Knox, 1993), 16-9.
 - 48) C. C. Neuger,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Minneapolis: Forterss, 2001), 15-6.

【 Abstract 】

Women's Place in Relation-Cultural Context

- Pastoral Counseling for Married Women (Ajumma)
from a Multicultural Point of View -

Mi-Kyung Kim
(Ph.D.,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As modern society fractionalizes, the culture too diversifies. Traditional Korean culture contained a strong community component based on farm life, but today there isn't any single integrating culture. For many, it is a positive unfolding now that each generation, class and area have their own voice compared to the preceding culture led by the older generation, the higher classes and from the center. However, for others this diversification is considered a serious problem. With so many different cultures among each generation, class and area, there isn't any universal culture nor any accepted communication between the different cultures.

So far, America has developed and practiced most of the various counseling approaches used today. These counseling approaches represented mostly white middle class values; promoting individualism, emphasizing independent problem solving and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ir freedom.

When people began to criticize that this white class oriented counseling approach could be applied to other nationalities, cross-cultural counseling was developed. This resulted in multicultural counseling taking into consideration different cultures.

Though Korea is a small land and does not consist of different races like the United States, it has a strong provincial character and each province tries hard to differentiate itself. Each province has a unique way of thinking and an individual personality. Even within Seoul, the inhabitants differentiate people who live south of the Han river from those living north of it.

Since Koreans tend to differentiate themselves and because we lack any accepted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I believe the most victimized group is the so-called the third gender, the Ajummas (literally married women). With their marriage, these women were drowned in this collective culture. Society further denied these women's self identity by promoting sacrifice and services.

As mentioned above, the cultural tendency of a nation has a strong impact on each member of the nation. That's because to whatever culture the individual belongs influences the diversity of his thoughts and actions.

Therefore, in order to help these women, a pastoral counselor has to be aware of which value he has and which role he is playing. At the same time he should explore what kind of influence he is making on the client. Jesus is a good example of pastoral counselor. He himself was aware of the diverse culture in which he lived and he healed and counseled people regardless of their class and provincial affiliation.

Kye words: pastoral counselor, collective culture, married women, ajumma, cross-cultural counseling